

# 2014 후원자(기업)-예술단체(인) 후원 활성화 활동

## 지원사업 지원심의 심사평

2014년도 후원자(기업)-예술단체(인) 후원 활성화 활동 지원사업에는 총73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심의회의에서 신청 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 심사기준-사업계획의 타당성(30%), 사업내용의 차별성(20%), 사업효과성(20%), 단체 수행역량 및 전문성(30%)-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7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문화예술후원을 직·간접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다양한 유형별 사업이 제시되었으나, 지원신청단체 상당수가 기업의 문화예술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및 후원유치로 신청하였으며, 다만 동 사업의 취지를 다소 이해하지 못해 단순 창작이나 향유 또는 기존의 단체 활동에 지원을 받는 내용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사업 유형에 대한 이해가 높고, 사업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이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인력양성이나 연구유형에 비해 후원활성화 기반조성이나 후원활동 촉진 활동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 콘텐츠 기획 외 성과목표, 수행방법이나 전략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그러나 선정단체의 세부예산 항목에서 인건비나 홍보비, 또는 각종 기타 비용의 과다책정 부분은 이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컨설팅이나 워크숍을 통해 조정될 개연성도 감안하여 조정하였으며, 실제 후원유치나 실적 평가를 위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후원자-예술단체 후원활성화 활동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